

국제화 마인드 함양하는 좋은 기회

포천시, 청소년 60명 국제자매도시로 출발

포천시는 7월25일 시청에서 학부모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중학교 2학년생 60명을 포천시와 교류 중인 국제 자매도시로 파견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7박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국제청소년문화제행사는 포천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화북시를 비롯하여 태국 방콕시, 체코 쿠노비시, 우크라이나 오부이프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14개 중학교에서 경쟁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외국가정에서의 홈스테이, 각국 문화체험, 자국문화 공연대회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며,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2005년도부터 매년 추진 중인 이 행사는 소도시에 살면서 해외방문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여름방학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해외여행 및 국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공항 입출국 수속부터 직접 스스로 하게 되며,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학기초부터 기초영어회화를 꾸준히 공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참가학생들은 포천시 청소년 민간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과 포천시의 명예를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고, 많은 경험을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성민 기자 csbkj@hanmail.net



포천시는 7월25일 시청에서 학부모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중학교 2학년생 60명을 포천시의 교류 중인 국제 자매도시로 파견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2008 포천시 청소년자원봉사 캠프’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는 24~25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8 포천시 청소년자원봉사 캠프'를 개최했다.

포천시 자원봉사센터는 24~25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8 포천시 청소년자원봉사 캠프'를 개최했다.

매년 여름방학을 기해 관내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이번 2008 포천시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는 올해 9회째로 개최됐다.

첫째 날에는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블라인드 워킹 등 장애체험과 공동체 심성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둘째 날에는 조별로 자원봉사 활동계획을 세워 관내 사

회복지사실인 마리아의 집, 늘푸른 집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일과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智德勞體를 생활화 하자’

포천시, 청소년을 위한 4-H 야외교육 개최



포천시 4-H연합회는 29일 동안 영북면 산정호수에서 중·고등학교 4-H회원 및 영농회원과 지도자 등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천시농업기술센터 후원으로 2008년 4-H야외교육을 개최했다.

포천시 4-H연합회는 29일 동안 영북면 산정호수에서 중·고등학교 4-H회원 및 영농회원과 지도자 등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후원으로 2008년 4-H야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덕노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하고 무한 경쟁시대에 적응하는 사회에 진출하여 농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첫 번째 날에는 4-H사약, 노래배우기, 자연정화활동 등의 교육 프

로그램과 래프팅 등을 체험하고 두 번째 날에는 서바이벌 게임과 공동체놀이, 봉사식을 하여 회원들 간의 단결의식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새로운 경쟁의식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편, '봉화식'에서는 포천일고 4-H회의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교육기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시간과 활동영상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4-H지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성민 기자 csbkj@hanmail.net

자유기고

시험이란...

후덜덜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었다. 마음까지 지치게 한다. 창 밖에서는 잠자리가 멋진 곡예를 한다. 잠자리처럼 자유로이 날고 싶다. 찌는 더위에 의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하는 이 시간은 끔찍한 기분에도 몸도 마음도 피곤하기만 하다. 며칠 남지 않은 기말고사가 부담스럽지만 마음을 다잡고 평균을 올려보자는 생각에서 열심히 공부에 임했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 제법 한다고 했는데.....

시험 날 아침에는 밥맛도 없어서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엄마의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다. 열심히 한만큼 댓가가 있을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엄마는 고맙다고 하셨다.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하라고 덧붙였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을 두근두근 뭉클하게 하게 만든다. 운동회 날 달리기 라인에 서서 총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힘을 다해 달려야 하는데.....

교문을 지나 교실 책상 앞에 앉을 때에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국어 사회 과학은 관습은 것 같았는데 수학이 문제였다. 2교시 수학 시험지를 접하고 보니 앞이 캄캄한 긴 터널 그 자체였다. "세상에.... 문제지에서 풀었던 것이 아니잖아.. 심화문제가 너무 많아... 9단원도 나왔어?"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너무나 힘든 긴 시간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래도 수학을 제외한 과목은 잘본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3.4 학년은 벌써 즉석 점수가 나왔나보다. 웃는 아

이들을 보고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는 아이들을 보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야... 나도 수학시험을 망쳤는데...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께서 3~4일 후에 점수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다. 그동안 가슴이 콩닥거려서 내내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다음날 점수가 나왔다. 시험지를 받아 재빨리 구석을 찾아가서 점수를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전과목 모두가 점수가 더 낮아진 것이었다. 특히나 지금까지 점수 중에서 이렇게 최악인 경우는 없었다. 현실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얼굴에 열이나 화끈거리고 점심도 못 먹고, 울고 또 울어 눈이 퉁퉁 부었다. 작은 눈이 작아지고 가슴에는 설움만 팍차고 무엇이 무엇인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건 영세로써 체면이 서질 않았다. 참회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한심하고 못한 아이일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온 힘을 쭉 빠지고 말았다.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제일 먼저 걱정이 되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수고 하시는데...부모님께서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와도 야단 알 칠게"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앞서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학원 선생님께서도, 부모님께서도, 관찮다고, 다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 그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면서 수고했다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자책감에 휩싸인 또 빠지고

말았다.

목사님께서 "실재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다. 그렇기? 힘든 시험이지만 이번 시험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실패는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정상을 향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2학기에 도전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았는데, 여전히 법망을 찾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은 계속 되었다. 부모님께서도 안 좋은 일은 빨리 잊고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부모님께서도 기대에 어긋나 충격은 크셨겠지만, 내색을 하지 않으시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인생사는 남까지 모든 시험은 연속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도 50인 나이에 당당히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걸 보면 시험은 끝이 없는 거 같다. 오늘 참문 밖에서도 전에 날던 핀잔 잡자리와 내기가 활활 예전처럼 날면서... 언제야! 우리들처럼 이렇게 날아봐~! 하고 시험을 보이는 것 같아 코웃음이 나왔다. 오늘을 거울삼아 내일에 합당한 도약을 위해 저 높은 창공을 날개를 접지 말고 날고 또 날아야겠다.



조은혜 학생기자단 부단장 단원조은혜

포천시립도서관, 여름방학독서캠프 운영

포천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7월29일부터 8월1일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4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 여름방학독서캠프를 운영한다.

포천시립도서관과 강남대학교

한국독서생활화연구회(RRR) 회원들의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독서캠프는 4일 동안 독서의 모든 기본원리를 교육하는 집중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 및 논리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독서캠프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미리 짜여진 계획표에 맞추어 독서특강, 독서토론, 감상문 쓰기 등의 수업 받게 되며 캠프기간 중 최소 2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또한 독서활동과 더불어 레크리에이션과 캠프파이어 등 즐겁고 활동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알찬 추억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기존의 도서관 방문접수에서 범위를 넓혀 관내 초등학교 학교 교장 추천과 직접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 미리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동도서관과 영종 꿈나무 도서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성민 기자 csbkj@hanmail.net

함께 공부해요

계고(稽古) 편 64

孟子道性善하시되 言必稱堯舜이러시니 其言曰 舜은 爲法於天下하시 可傳於後世이시니 我는 猶未免爲鄉人也 하니 是則可憂也라 憂之如何오 如舜而已矣라 하시니 攘往行實前言하여 述此篇하여 使讀者로 有所興起 하노라.

계고는 옛일을 상고하는 것이다. 이편에서는 虞 夏 商 周. 등 고대 國家의 聖賢들의 行蹟을 詳考하여 앞에 나온 立敎 明倫 敬身. 篇의 말들을 實證하고 있다. 모두 47장이 있는데 선별하여 연재한다.

맹자는 성(性)선(善)을 말하였는데, 말 할 때마다 반드시 오·순을 예로 들었다. 그가 말하기를 "순임금은 천하에 법이 되어 후세에 이를을 전할 수 있었는데 나는 범인(凡人)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근심할만한 것이다. 근심이 된다 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임금과 같게 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에 옛 어진 이들이 행실을 수복하여 이 편을 지어서 앞에 나온 말들을 실증하는 동시에 읽는 자로 하여금 감동하여 분발함이 있게 하고자 한다.

양주승 본지 자원위원외교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pcs21.net) 또는 전화 538-3971~2(일동도서관) 및 538-3981(영종꿈나무도서관)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민 기자 csbkj@hanmail.net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수와 셈 19. <보 기>:(12) 제품 사양 (4)
 *20 피트 컨테이너에 몇 통이나 실을 수 있나?
 하메나벤텍스캔비로트 온너트렌드투컨테이너?
 <How many buckets can be loaded on a 20-ft container?>
 *하중제한으로 630 톤만 실습니다
 비코웃더워워컨츄얼, 와이켄스탑후 씨스한드트머리마켓손리 <Because of the weight control we can stuff 630 buckets only.>
 *그래서, 남은 공간에 가벼운 물건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와이테어휘합담 더인사이스페이스 워쌈어더라잇아이템스 <We therefore fill up the inside space with some other light items.>
 *때로는 공간에 빈통 300여 개로 채우기도 하지요
 썬타인 와이푸린 오버트루한드트 엠티마켓 <Sometimes we put in over 300 empty buckets.>
 *"바이어"블레젠 이익이 되는 셈입니다
 맷스베어휘헬을 휘더바이어스 <That's very helpful for the buyers.>

문의: 윤 중 성 (017-723-4977)coyoon@nate.com

BEST 보육프로그램 9 전통문화 계승프로그램 관인전통놀이 한마당

다문화 속에서 돋보이는 우리의 전통 아이들의 자연스런 놀이로 계승돼야

예전엔 땅바닥에 내려치는 아이들의 딱지 소리가 동네 골목에 가득했고, 웅기종기 모여 앉아 공기놀이와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즐거우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그 우리들의 문화가 이제는 전통놀이가 되어 버렸다.

돌맹이와 땅바닥, 나뭇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하루를 즐겁게 놀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장난감이 있어도 심심하단다. 생방송이었던 예전의 놀이에 비해 일방적인 혼자만의 놀이 이기에 아이들은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지난 호에서 예고했던 대로 전통놀이 한마당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에 대한 활동을 증진하듯 한 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통놀이 한마당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요즘은 다문화의 사회이다. 우리만의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알려주고 경험시키는 것은 좋은 교육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문화에 앞서 우리문화, 우리의 전통 놀이에 대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교사회의를 통해 사전계획, 본 활동, 연계활동, 평가에 대해 프로그램을 구조화한다. 사전계획에서 목표, 시간, 전통놀이 종류, 환경 구성, 준비물, 부모도우미 협조 등을 계획한다.

본 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활동목표를 짚어주고 활동방법에 대해 토의한 후 모둠을 구성하는데, 반별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연령 모둠을 구성하여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활동을 즐긴다. 활동은 씨름장, 제기차기(끈이 있는 제기차기), 투호놀이, 파래 맞추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널뛰기, 왕대포 놀이, 윷놀이, 줄다리기, 팽펏기 등을 활동한다.

유의점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마당이 있고,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있음을 유해하며, 다소 불편한 하더라도 반복을 입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환경 구성으로는 아이들이 미술시간에 작업한 북 주머니, 무궁화 꽃, 장승, 상모, 십장생병풍등을 전시하고, 동양화들도 같이 전시해 놓는다.

활동 후에는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어떤 활동이 재미있었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듣고 그림이 있는 만족도 조사를 각자에게 나누어주어 유아평가를

해 본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평가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부족했던 점들에 대한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진 도우미 어머니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부모평가가 꼭 들어보아야 한다.

전통문화계승프로그램의 하나로 구성된 본 '관인전통놀이 한마당'은 신체를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이기에 역동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행복해 하며 활동을 즐겼다.

전통놀이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 적어도 둘서 많은 친구들이 있어야 재미있는 놀이로 이어질 수 있다. 혼자서 누리는 사이버상의 즐거움보다 여럿이 즐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소 불편한 하더라도 반복을 통해 알아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놀이가 현대에도 일반화되어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기를 기대하며 마치고자 한다.

김경선 관인어린이집 원장 kksun64@hanmail.net